
향후 10년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 미·중 패권경쟁 -

2020. 11. 2.

울산대학교 석좌교수 /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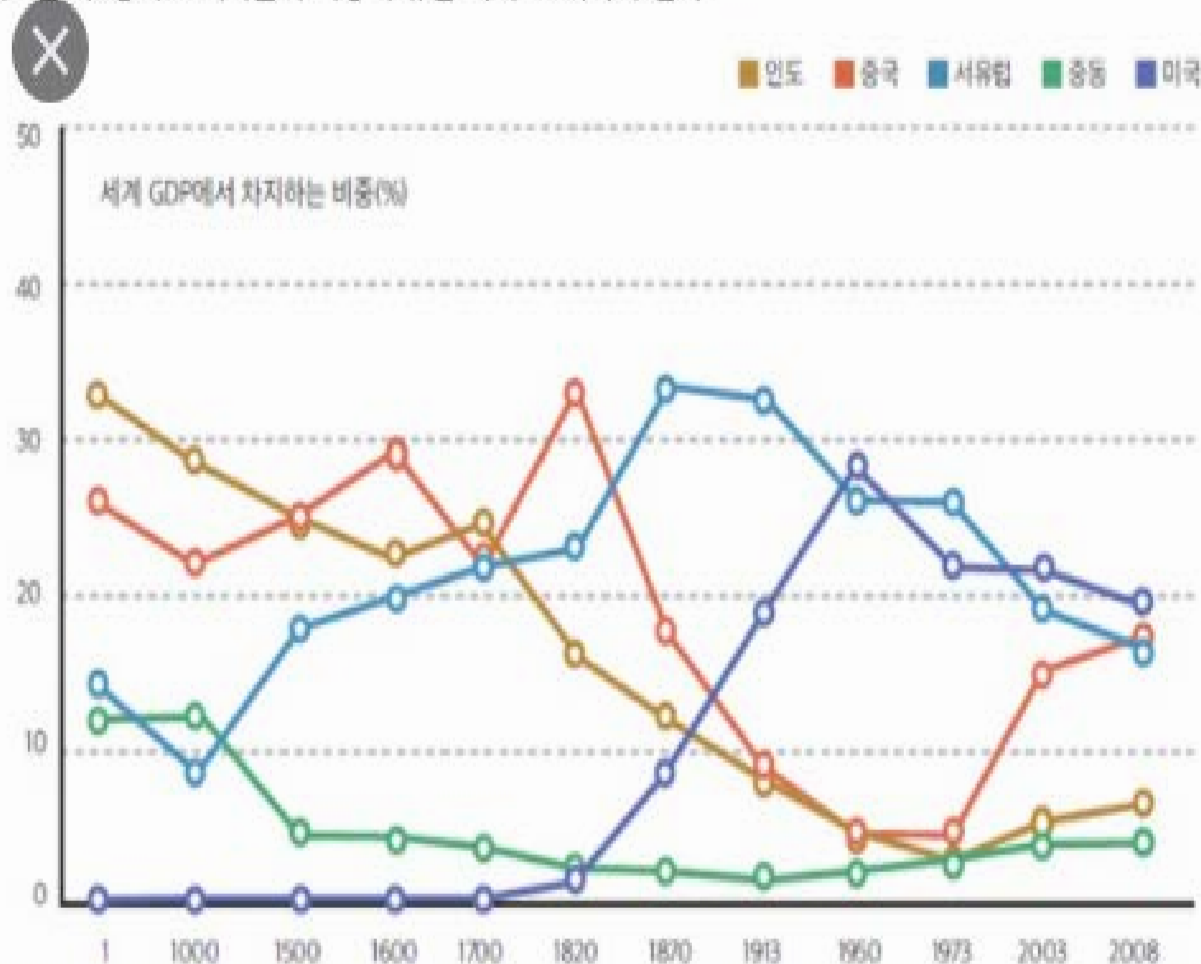
법학박사 윤 상 직

목 차

I. 역사적 중국경제	3
II. 78년 중국의 경제개방과 고속성장	7
III. 미·중 무역·기술패권전쟁과 미국의 전략	9
IV. 중국의 대응전략	11
V. 중국경제의 4+! 압초 : 삼중 부채/노령화/중진국 함정/공산당 독재/서방진영 견제	13
VI. 토론	14

I. 역사적 중국경제

〈그림 1〉 앵거스 매디슨의 가장 부유한 나라 10개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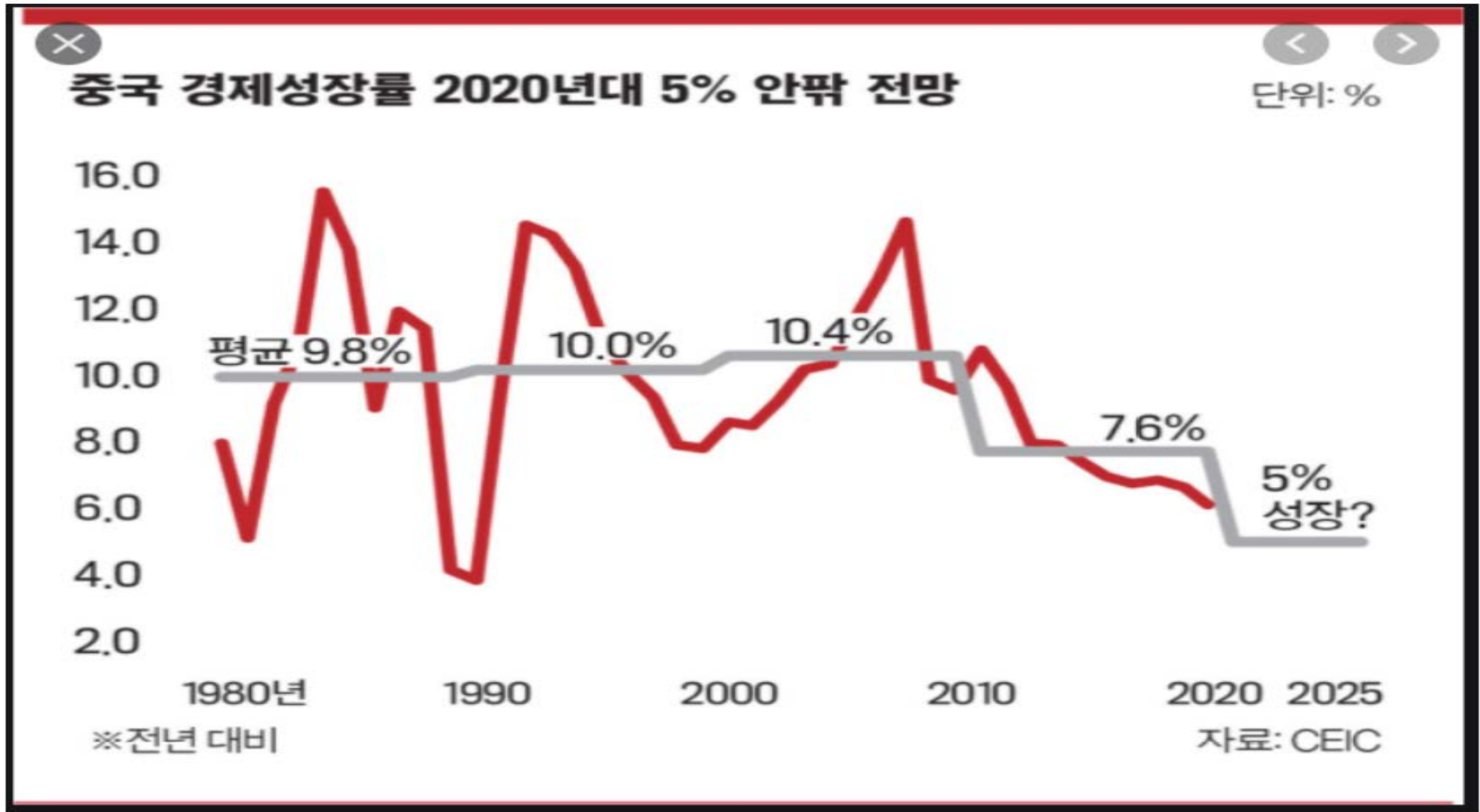
인류 역사 시작부터 18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인도와 중국이 제1~2의 국가였음.

180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가 1위로
치고 올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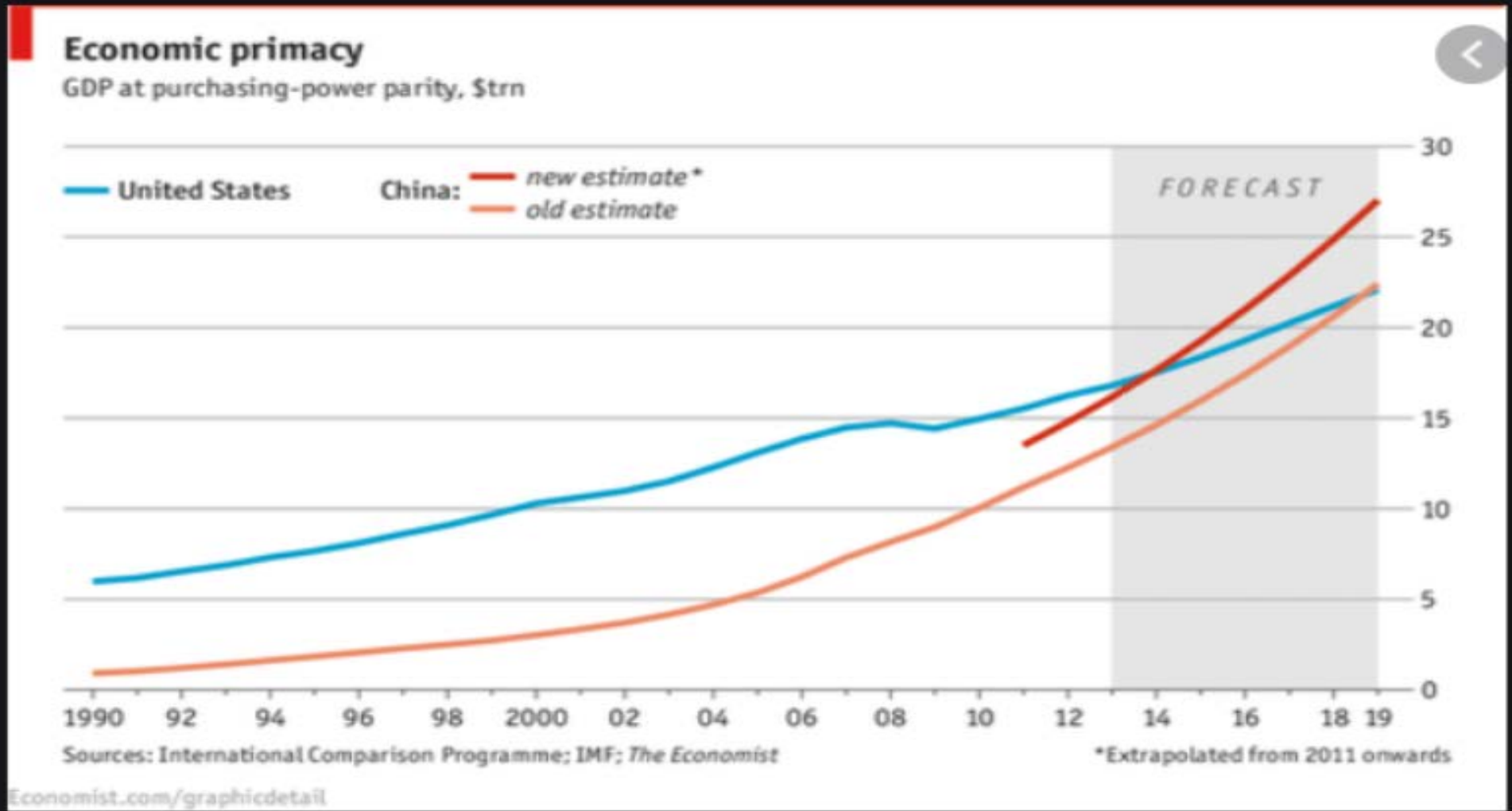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해
현재까지 1위를 고수함.

중국이 최근 다시 빠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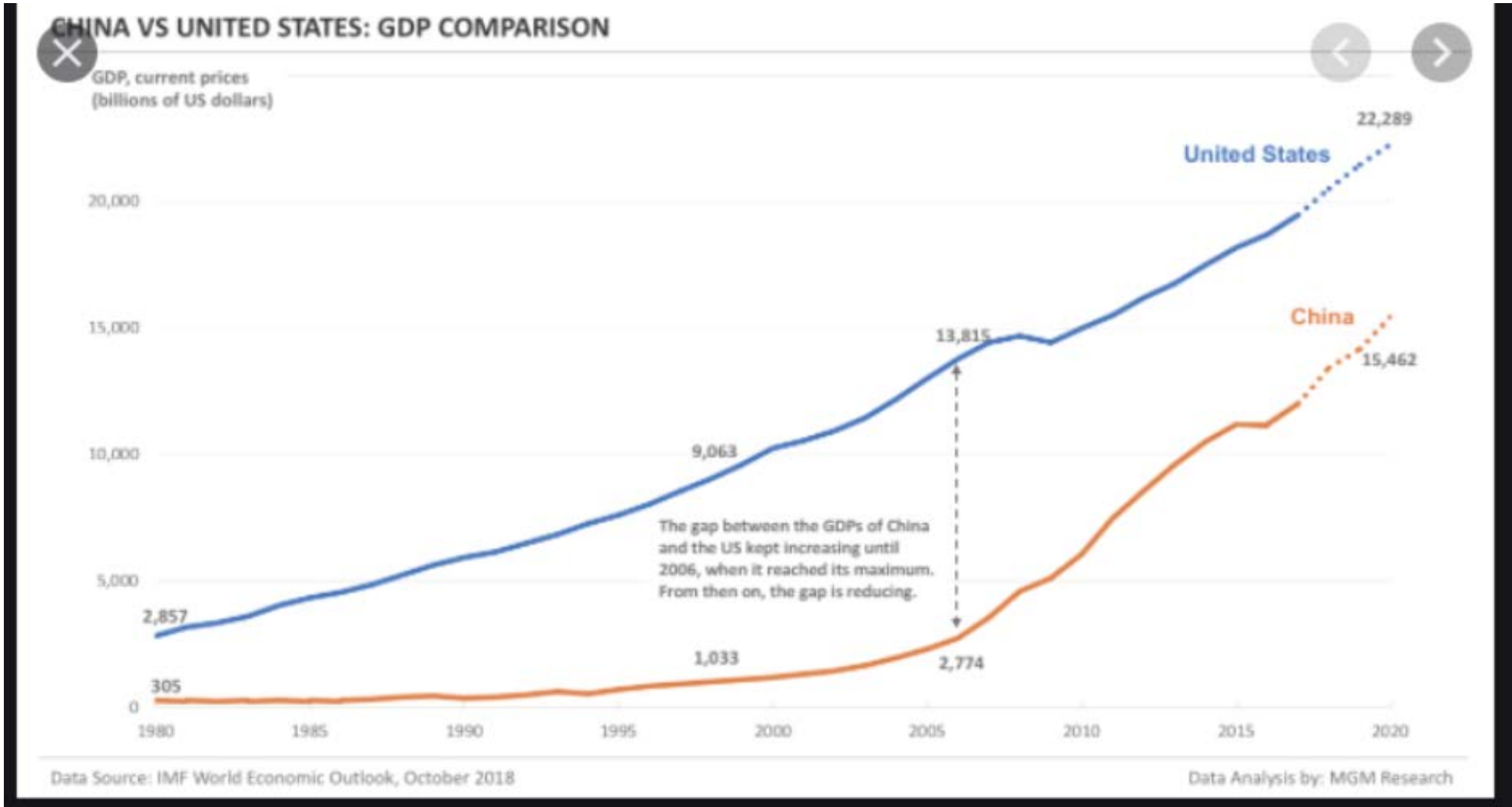
Ⅱ. 78년 중국의 경제개방과 고속성장



■ 미·중 구매력 평가기준 GDP 비교



■ 미·중 GDP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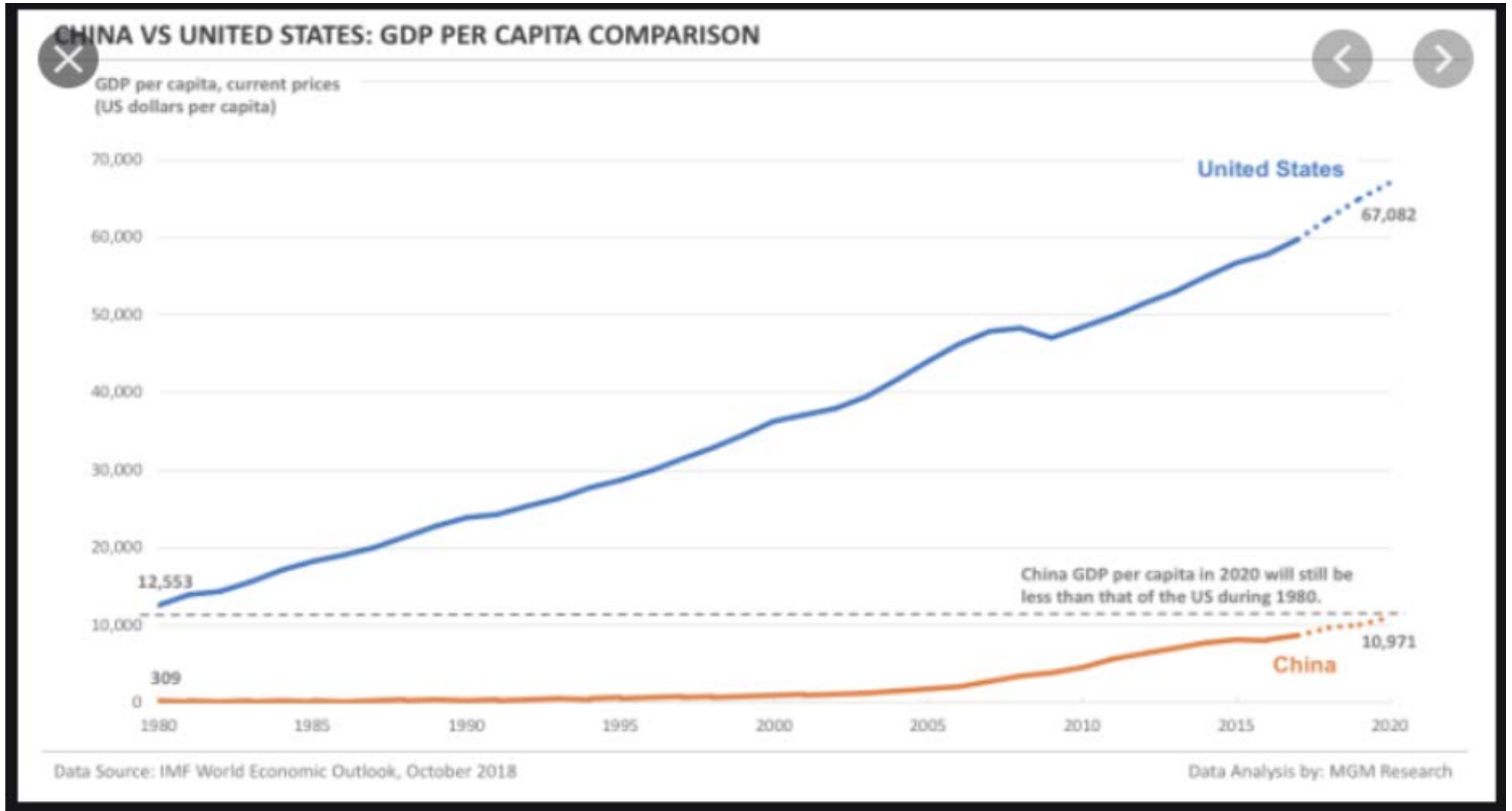


■ 등소평의 20자 유훈

1. 냉정관찰(冷靜觀察) 냉정하게 관찰할 것.
2. 은주각보(穩住刻步) 서두르지 말 것.
3. 침착응부(沈着應付) 침착하게 대응할 것
4. 도광양회(韜光養晦) 어둠속에서 조용히 실력을 기를 것.
5. 유소작위(有所作爲)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만 나서서 할 것.

<유언> "내가 죽고나면 100년간은 잠자코 힘을 길러라. 나는 우리나라가 조금 힘이 강해 졌다고 경솔히 구는 것이 가장 두렵다. 다른 나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말라. 100년이다. 100년간은 웅크리고 힘을 길러라. 그렇게 하면 중국은 다시 세계의 으뜸이 될수 있을 것이다."

■ 미·중 1인당 GDP 비교



■ 중국의 빈부격차

중국인 중...

월수입 1,000 元(약 15만원)이하가 5억 6,000만 명

월수입 2,000 元(약 30만원)이하가 9억 6,400만 명

즉 중국 인구의 70%는 하루에 1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

중국, 14억 인구 중 1억 명이

연 25,000 달러(한화 약 3,000만원)를 번다 (월 250만원)



리커창 李克強, Lǐ Kèqiáng (1955~)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제7기(2013.3.15 - 2018.3.15), 제8대(2018.3.15~)

李 克 强
LI KEQIANG

▶ ◀ 🔊 19:24 / 42:50

전국인민대표대회 (양회) 폐회 기자회견/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금 객홀) 2020.5.28

Ⅲ.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의 전략

1. 관세전쟁 :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순위가 대테러에서 대중국 견제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관세전쟁 선공

미·중 대상대국 평균 관세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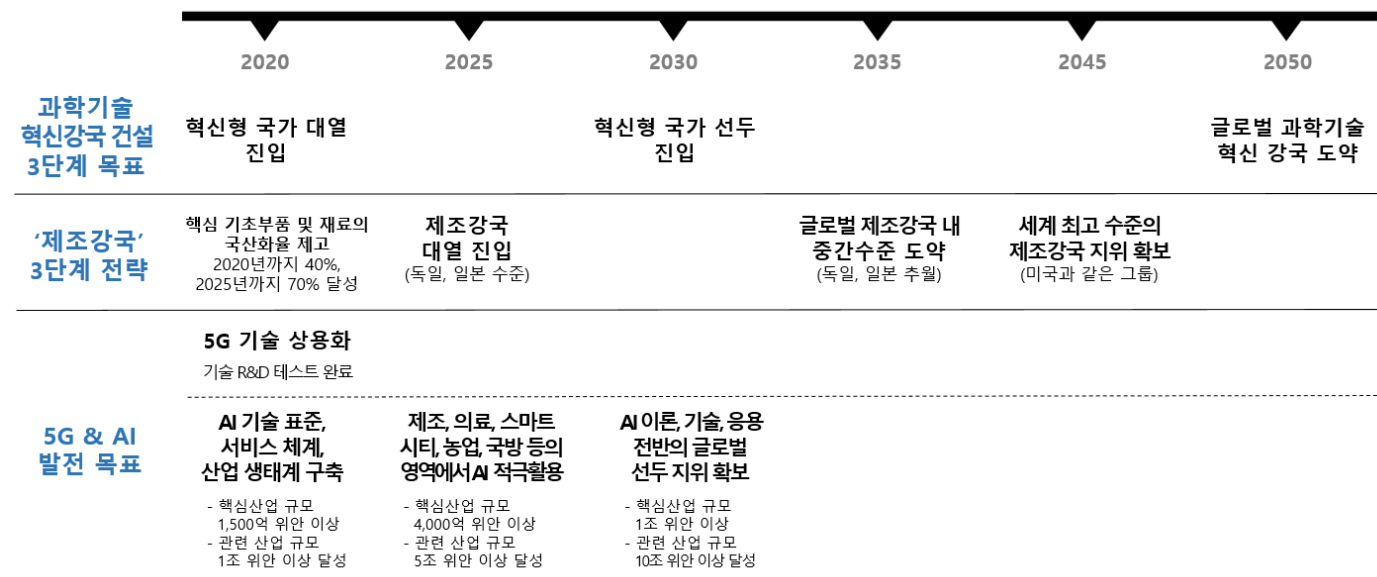
자료: 2018년 상대국으로부터의 관세 대상 품목 수입액 기준

2. 기술전쟁 : 반도체, S/W 등 첨단제품·기술에 대한 중국접근 차단

-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RC」 (백악관, 2020.5.21.)는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갈등의 근본원인. 첨단기술은 민군겸용으로 기술이 경제적·군사적 패권의 핵심.
- 5G, AI, 빅데이터, 로봇, 드론, 항공우주, 양자컴퓨터 등 민군겸용기술, 중국은 5G, AI, 슈퍼컴 분야에서 미국과 선두를 다투는 상황
- 화웨이, Hikvision 등 인민해방군과 연계 의혹이 있는 중국 IT 기업들이 막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서방시장 장악, 중국 정보보호법은 기업들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협조할 의무를 규정(중국정부가 기업을 통하여 서방정보 수집)
 -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 습득과 시장 장악을 막기위하여 안보를 이유로 5G 이통시스템 공급제한, 반도체 공급중단, 미국 투자 규제, IT기업 제재

■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 중장기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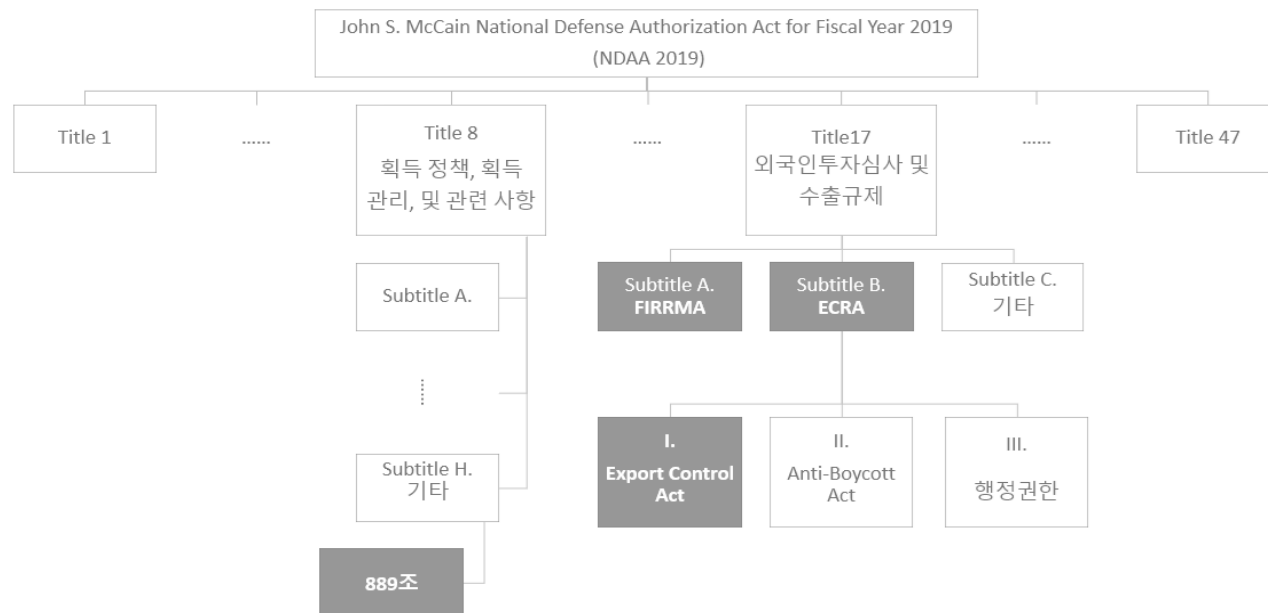
- 중국 혁신강국 건설 : 첨단과학기술 육성전략,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과기인재 육성전략
- '중국제조 2025':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신에너지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10대 산업육성



■ 트럼프 미 행정부, '중국제조 2025' 타겟 무역·투자 규제

「2019국방수권법」안에 「수출통제개혁법(ECRA)」, 「2019 국방수권법 889조」,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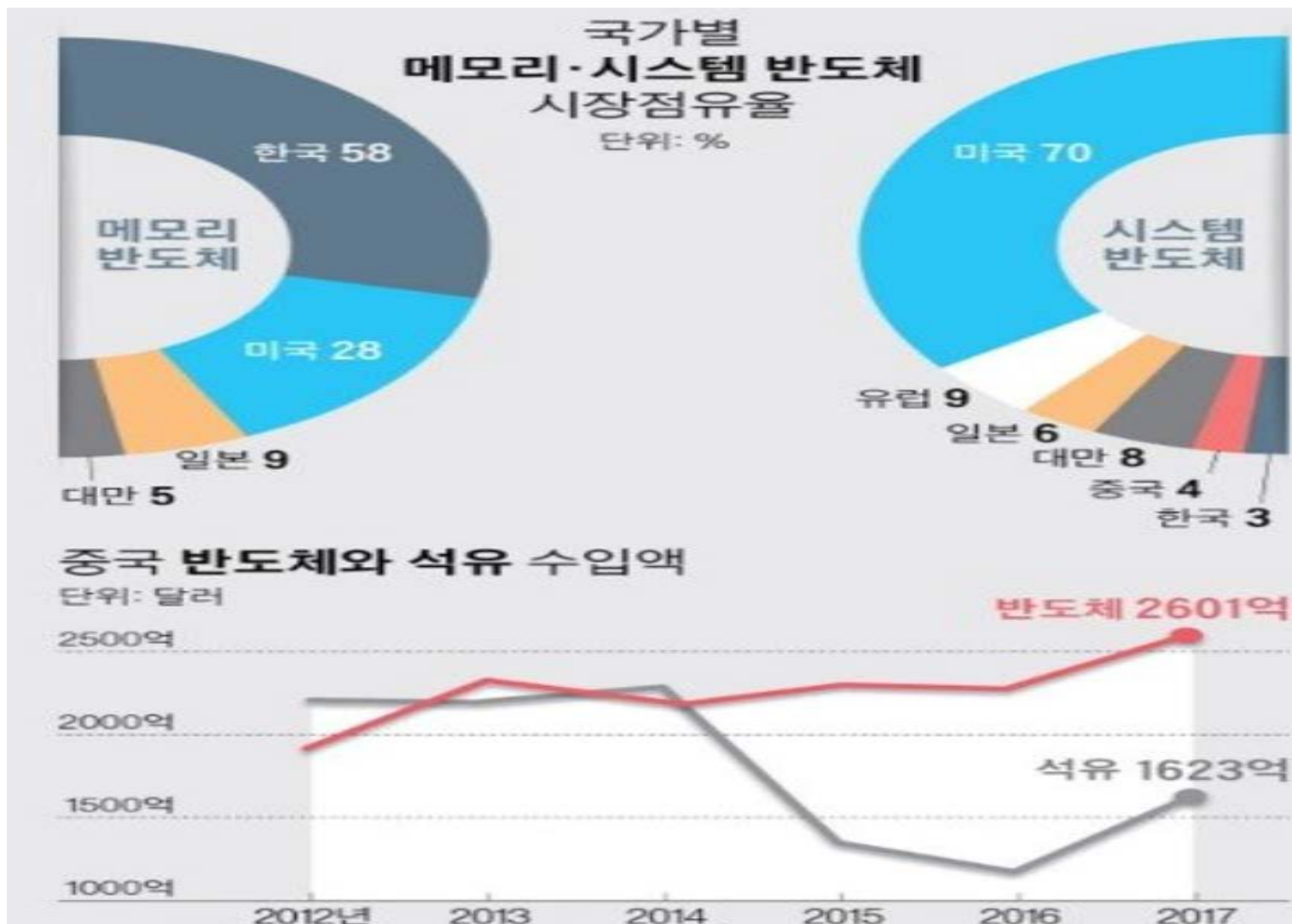
「2019 국방수권법」 중 미국의 대중제재와 관련한 내용(음영)



<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규제 >

- 2020년 8월 17일 수출관리규정(EAR) 재개정을 통해 반도체 설계 S/W나 제조장비로 만든 반도체를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면 제재(secondary sanction)
 - 구글 S/W와 기술 서비스 중단 결정, 인텔.퀄컴 칩 공급 중단. TSMC 미국 파운드리 칩 제조 공장건설 및 거래 단절. 대만 미디어텍 수출 포기.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반도체 공급 중단. 중국 SMIC(세계 5위 파운드리 업체)도 제재 포함
-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축출, 5G 이통시스템 서방시장 장악 좌절

<국가별 반도체 시장점유율, 중국의 반도체와 석유수입>



3. 인권·가치·체제 경쟁

▲ Covid-19 팬데믹의 중국 책임론과 함께 홍콩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일대일로 등 중국의 권위주의적 팽창정책에 대하여 민주진영 연대 반발

- 대만을 '국가(country)'로 지칭, 중국(One China) 정책에서 선회 조짐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및 미 보건부장관 대만방문, 최신 첨단 무기 공급
- 텐안먼 사태비난 및 사망·실종자에 대한 공개조사 촉구
- 신장위구르 자치구 무슬림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 비난 및 석방 촉구
-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과 가까운 국가로 구성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추진
- '20년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한 불법이라고 첫 공식 규정.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 홍콩 특별대우 박탈

■ 동맹과 연대를 통한 중국 포위

○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분리하여 체제변화 추진. 시진핑 3연임 저지

- 폼페이오: “닉슨대통령은 중공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것을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는 것이 아닐까 우려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을 잘살게 해준 국제사회의 손을 물어뜯었다. 세계가 중공을 바꾸지 않으면 중공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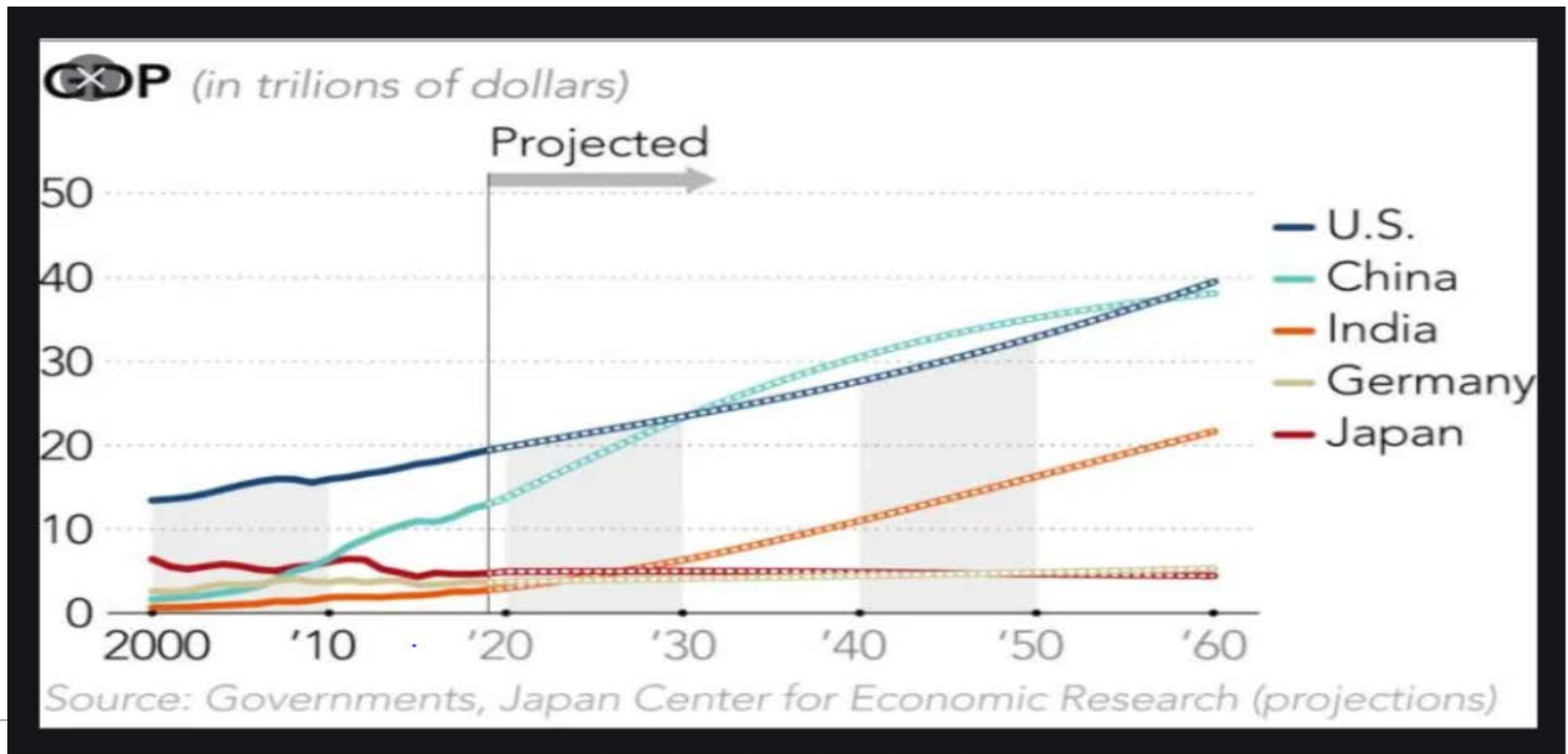
○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여 대중국 포위망 구축

- 미·일·호·인도 쿼드 동맹, AUKUS 동맹
- 미국, 프랑스, 영국, NATO국가들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 미국의 암묵적 대만독립 지지 및 첨단무기 제공, 방어 약속

VI. 중국경제의 장기예측과 중국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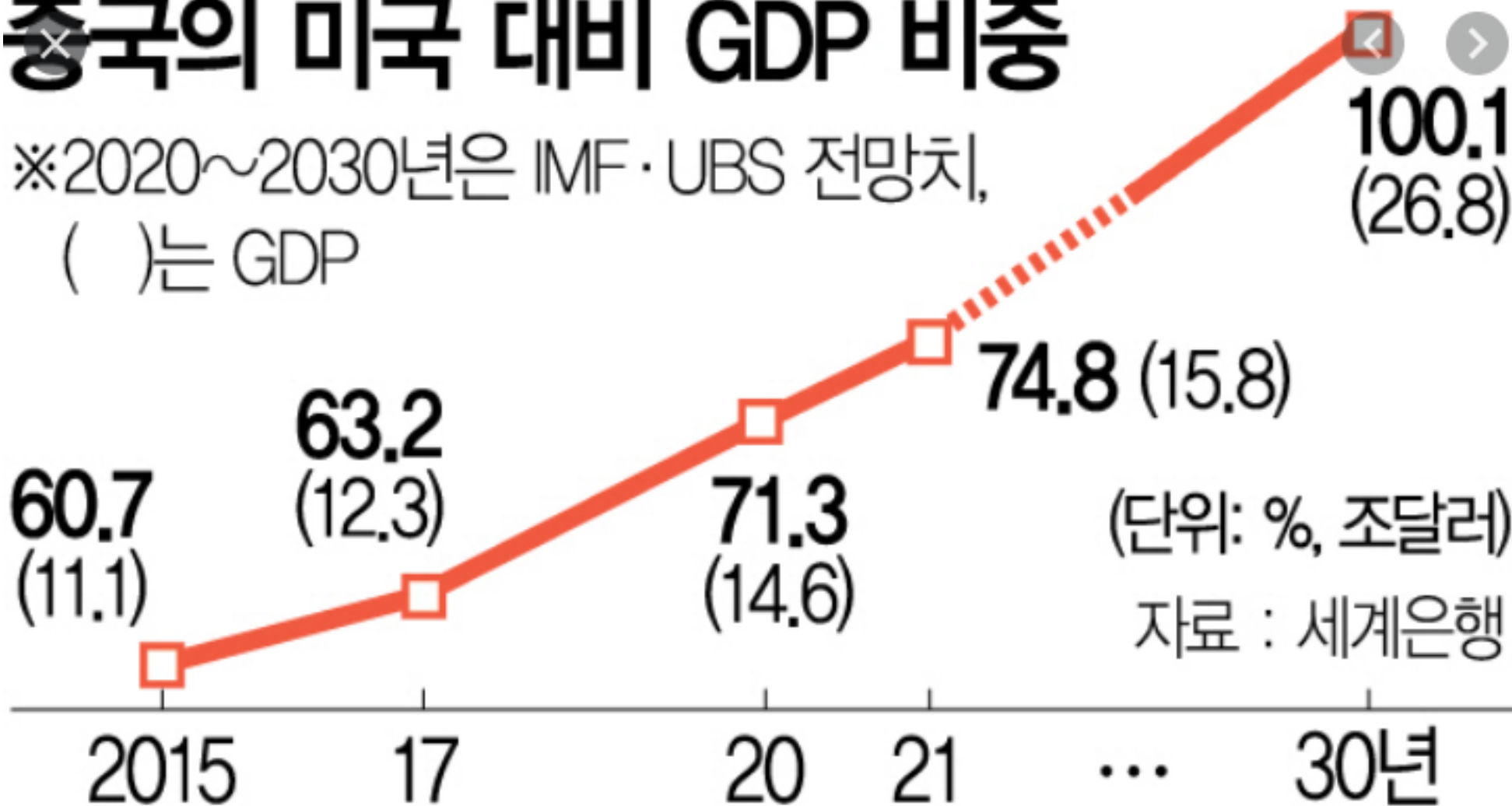
1. 중국경제의 장기예측

■ 일본 경제연구소



중국의 미국 대비 GDP 비중

※2020~2030년은 IMF·UBS 전망치,
()는 GDP



V. 중국 경제의 4+1 암초

1) 고령화와 인구감소

2) 급증하는 삼중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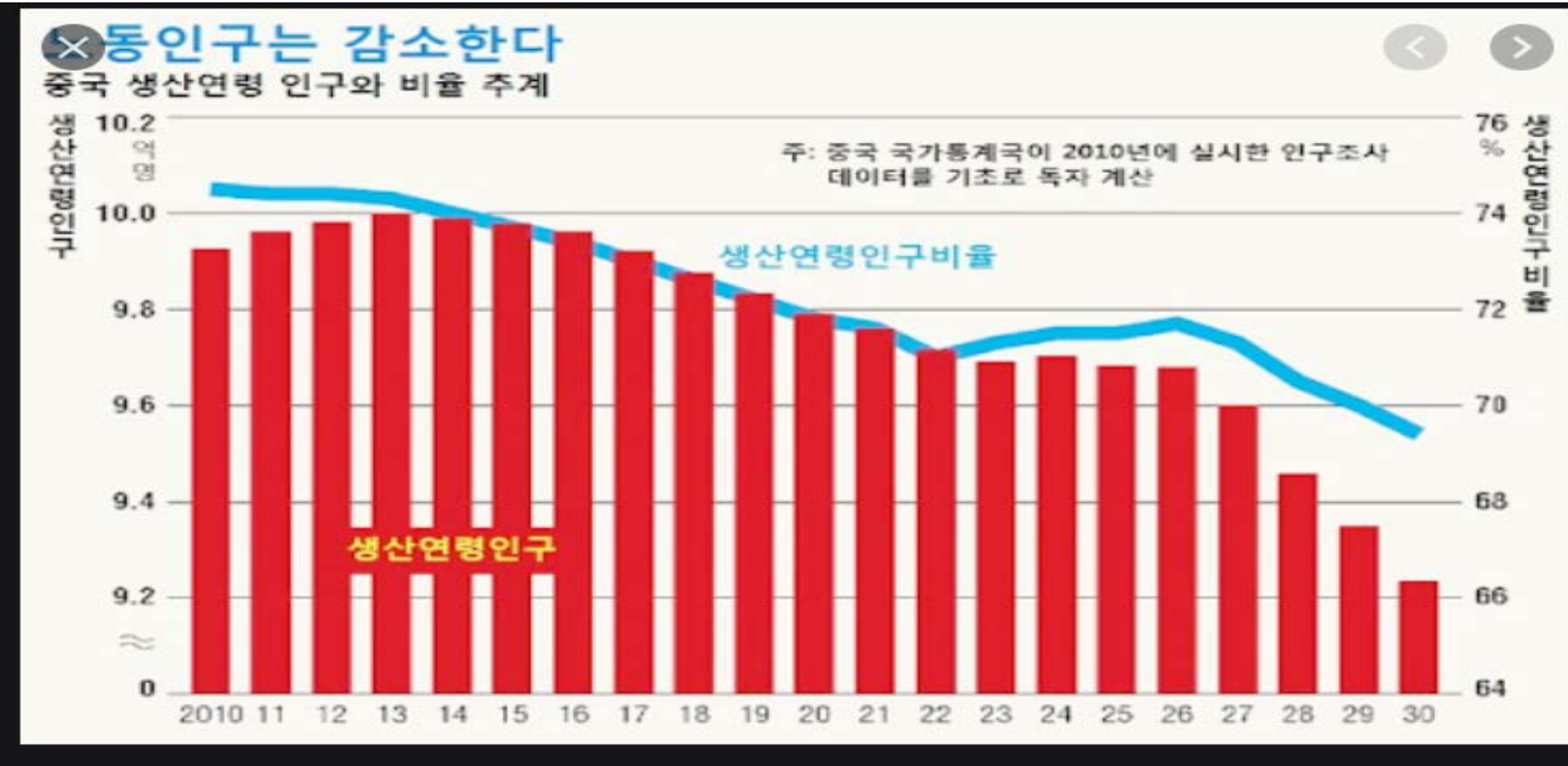
3) 중진국 함정

4) 권위주의적 공산독재

5) 서방진영의 견제와 포위

1. 고령화와 인구감소

■ 2016년부터 중국 생산가능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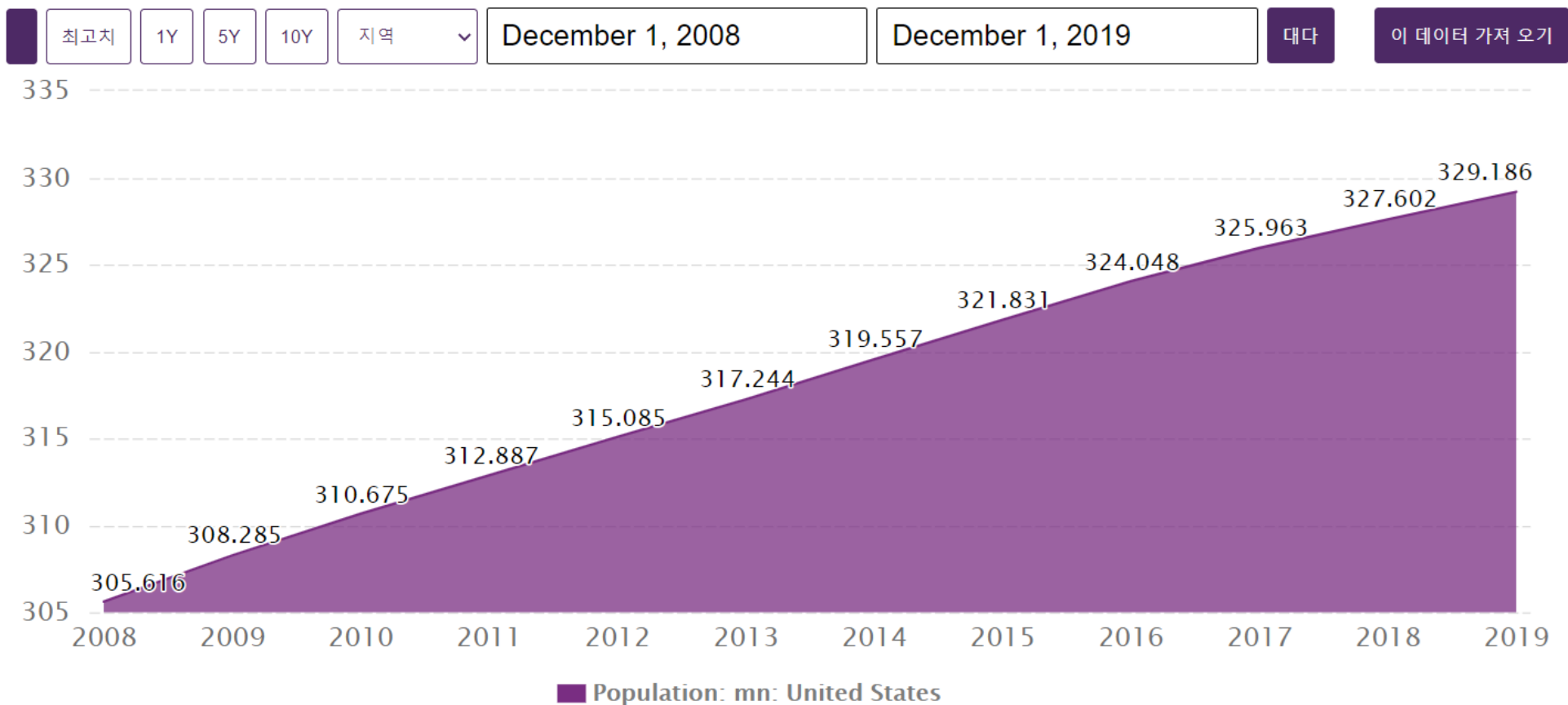


■ 2030년 기점으로 중국 총인구 감소예측. 실제로는 작년부터



■ 반면 미국 인구는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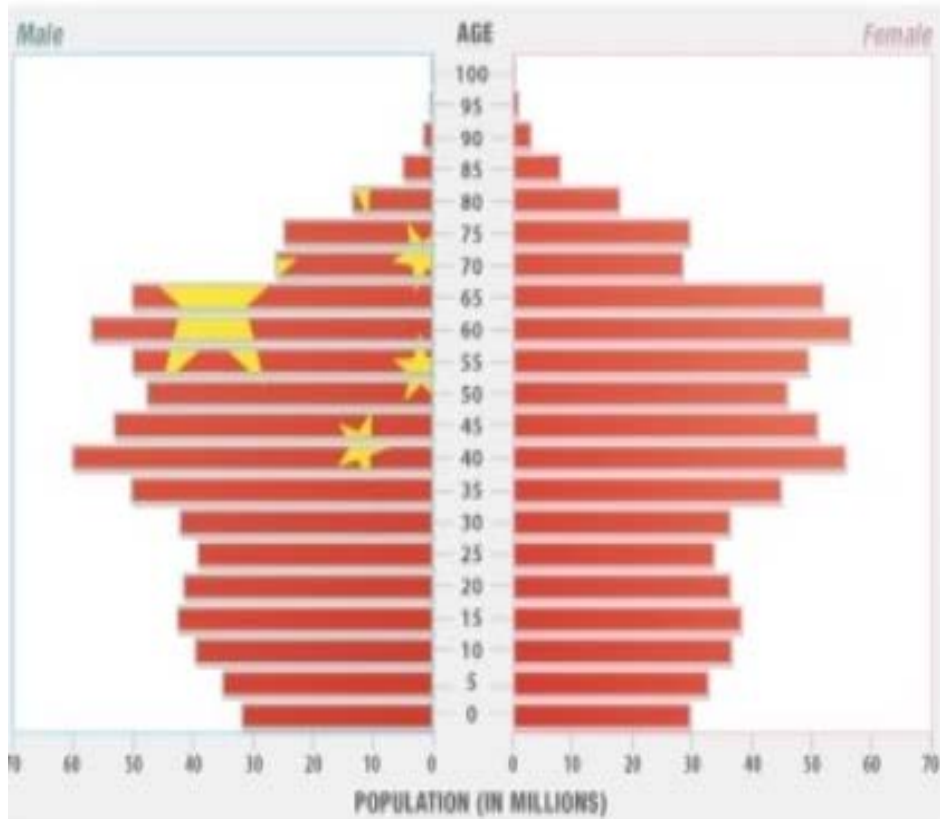
미국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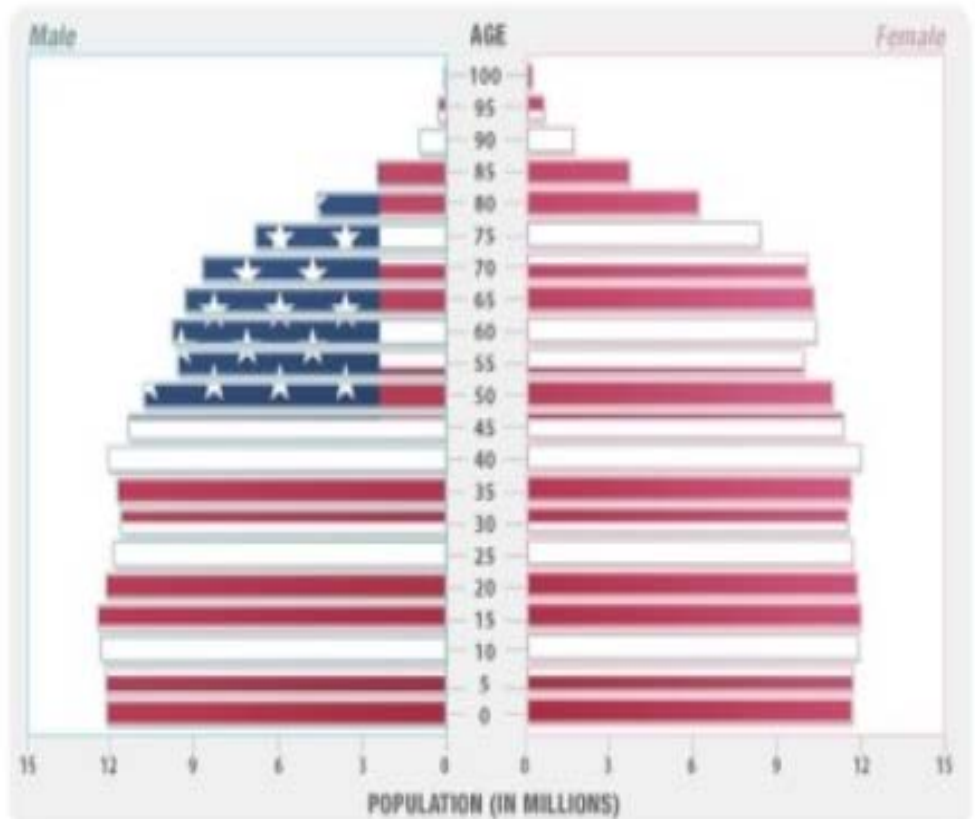
SOURCE: WWW.CEICDATA.COM | CEIC Data

■ 중국과 미국의 인구구조 비교(2032년 예측)

CHINA



UNITED STATES OF AMERICA



■ 고령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80년대부터 추진한 한 자녀정책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2030년경부터 총인구감소 예측 : 내수의 위축
-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
노동력 부족 현상 : 요소투입 경제성장의 한계 봉착
- 사회안전망 및 복지제도의 미비로 고령인구가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성장 잠재력의 잠식

2. 급증하는 삼중 부채(부동산버블, 인프라 버블, 일대일로)

※ 중국 300%, 한국 240% 수준.



■ 부채주도 성장



■ 금융위기, 회색코뿔소의 등장

- 시진핑 주식,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채무가 초래할 성장둔화를 막기위해 정부 대출 확대 → 밀빠진 독에 물붓기, 금융위기 ?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300%를 넘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채무 부담을 중국 정부가 안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빚이 '삼중 부채(triple-debts)'라는 점. 곧 가계-기업-정부라는 경제주체 3자가 모두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

1) 부동산 버블



2) 고속철도 등 적자 인프라 건설 난발



3) 일대일로 사업 참여국 재정위기

- 일대일로 참여국의 대중국 부채 : 3,800억달러, 미 IMF 지원 거부



3. 중진국 함정

■ 중진국 함정이란?

-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초기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하다가 1인당 국민소득이 6,000~1만불대에서 장기간 정체 되거나 후퇴하는 현상. 2006년 ADB에서 처음 사용
 - 대표적으로 60~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 러시아, 외환위기시 한국 등
- 중국 경제성장 : 약탈적 경제, 노동·자본 요소투입형 성장 ←
생산성 향상이 따르지 못함

■ 중국의 중진국 함정 탈출전략

- 국가 경제성장전략으로 쌍순환 전략 채택 공식화, 2021~25년 5개년 및 향후 15년 동안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에 집중
- 중국 혁신강국 건설 : 첨단과학기술 육성전략,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과기인재 육성전략
 - '중국제조 2025':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신에너지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10대 산업육성
-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 혁신·생산성 향상 경제발전 전략도모

■ 중국 중진국 함정의 탈출 가능할까?

○ 시스템 선진화 : 재산권 보호, 노동시장 개혁, 경쟁과 창의 존중

시스템 운영의 개방성·투명성, 책임과 권한, 법치주의, 개인존중

지하경제 축소, 구조적 부정·부패 청산(시장경제와 민주화)

→ 총요소 생산성 향상, 혁신 경제

○ 중국 역으로 가고 있다 : 민진국퇴 → 국진민퇴, 권위주의적 공산

통치 강화, 쌍순환 전략으로 홍색공급망 구축, 정략적 부패청산

■ 반도체 산업육성의 허구

- 중국 반도체 자급율은 15% 수준에 불과. 시진핑 2018년7월 장강 반도체 방문후 20여개 프로젝트(10조원 이상) 붐·물거품
-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약 27만개, 하루 평균 200여개 기업 설립. 정부의 반도체 자립정책과 지방정부가 자금지원
- 반도체 자립을 외치며 거액의 정부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돈을 받은 회사들은 기술개발은 뒷전이고 부동산투기

※ 우한홍신 파산(17년 설립, 7나노 목표, 중국 2600억원 투자)

■ 중국과 미국의 혁신비교

- 마윈 : 중국의 혁신이라는 게 전부 응용상의 혁신이지 기초과학 기초기술 같은 밑바닥 분야는 혁신이 없다. 애플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라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응용기술일 뿐, 기초는 연산능력, 즉 반도체칩.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우리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 20년이나 뒤져있다.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는 90나노 수준 반도체, 인텔이 2004년에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식당앞에 로봇을 갖다놓는다고 AI분야에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
- 런정페이 : 시주석의 장강반도체 공장 방문후 반도체붐이 일자
"도로 뚫는다, 교량 건설한다. 아파트 짓는다고할 때는 돈만
부으면 되었다. 반도체는 돈 때려부어 되는 것이 아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같은 인재를 때려넣어야 한다." 고 비판.
 - 중국 2020년7월 공산당정치국회 당시 1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2021~2025)을 논의하면서 1600조원이상 소요되는
반도체 기술 자체개발 프로젝트를 포함 ← 전체주의 특유의
동원체제로 기술부족을 극복?

4. 권위주의적 공산당 통치

- 2020. 10.24, 상해 와이탄 금융정상회담시 마윈 회장의 발언과
앤티그룹 홍콩.상해 증시 상장 중단지시

“중국 금융당국이 담보가 있어야 대출해 주는
‘전당포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금융 시스템은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의 부재가 문제”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監督)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무서워한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순 없다”
- 마윈

■ 시진핑의 중국몽과 공산당 독재 통치

- 권위주의적 공산당 통치는 중국을 가치의 다양성, 독창성, 창조성을 저해.
- 2013년 시진핑 집권이후 중국 공산당은 자유민주화 보다 일당 독재를 강화
 - 대내적으로는 시진핑 영구집권, 민진국퇴에서 국진민퇴로
 -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중국몽을 꿈꾸었으나 자유진영에 속셈이 들통나면서 사면초가 상황.

■ 중국의 부자 돼지 도살 순위

- 중국판 포브스라 불리는 '후룬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중국 100대 부호순위'는 중국에서 '돼지 도살랭킹'으로 불림. 돼지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이 순위에 오른 부자는 정부의 사정칼날을 피하기 어렵기때문임

연도	중국 1위 부호(후룬연구소)
2020년	마윈 (알리바바)
2019년	마윈
2018년	마윈
2017년	쉬자인 (헝다)
2016년	왕젠린 (완다)
2015년	왕젠린
2014년	마윈
2013년	왕젠린

VI. 토론